

# 개혁 등불 밝혔으나 '햇불' 되지 못한 채 '쫓불'로 스러져

## 56 추존왕 문조와 신정왕후 - 수릉

문조 1809 ~ 1830 (22세)  
신정왕후 조씨 1808 ~ 1890 (83세)

'이영→효명세자→익종→문조' 효명세자에 대한 호칭 변천사다. 22세에 요절한 위인치고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력서가 복잡하면 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의미다.

효명세자는 역대 국왕 중에 가장 예술적, 문학적 조예가 깊고 뛰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춤을 사랑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춤 사랑은 기울어지는 국운을 털고 일어서는 살풀이춤이 되지 못하고 허약한 쫓불춤으로 끝났다.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돼 부패를 태워버리고 조선의 기강을 굳게 세울 장수를 기대했지만 그는 낭만적 예술가 기질이 한계였다.

효명세자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의 제1자로 태어나 순조 12년(1812) 4세에 왕세자로 책봉됐으며 순조 27년 2월 18일부터 30년 5월 6일 급서하기 전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대리 청정을 했다. 그는 당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순조의 염원과 기대를 한 몸에 지고 부왕의 명을 받들어 대리 청정을 했다. 대형 동안에 아버지 순조의 정치적 염원을 거의 가시화하는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대들보와 기둥이 썩어 뿌지직 소리가 나는 조선에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희망은 곧 잘 희망사항으로 끝난다. 사가(史家)들이 입을 모아 애석해하는 조선의 두 세자가 있으니 소현세자와 효명세자다. 그들이 요절하지 않고 여법하게 등극했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한다.

효명세자는 예약 정치의 일환으로 궁중 연향과 춤을 다루는 고도의 무용정치를 펼쳐 효율적으로 안동 김씨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당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약정(樂政)이 중단돼 정재(宮중무용)의 창사조차 제대로 전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궁중 연향을 통해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 질서를 과시하고 왕실의 위엄과 존왕 의식을 표명하는 정치의식 양식화를 꾀했다. 예나 지금이나 거창한 군사 퍼레이드, 성대한 잔치는 권력 과시의 수단이다.

그러하여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화려한 황제시 궁중 연향들을 벌이면서 궁중 무용의 창사와 가사를 직접 지



중요제례에서 팔일무를 추고 있다.

## '춘앵전' '가인전목단' 창작, '고구려무' '향령무' 등 궁중무용 복원 "요절하지 않고 여법하게 등극했다면 조선 운명 달라졌을 것" 평가

었다. 연향에 쓰이는 치사와 전문을 직접 지어 올리고 이름만 남은 옛 정재들을 자신의 약장으로 되살려냈다. 더불어 연향의 규모를 확대해 왕실의 위엄을 한껏 드러내는 화려한 정재와 연향의 양식을 확립했다.

피꼬리가 노는 것을 보고 창작한 <춘앵전>, 모란꽃을 들고 춤을 추는 대표적인 궁중무용 <가인전목단>을 직접 창작하고 <고구려무> <향령무> <장생보연지무> 등의 궁중무용을 복원 및 집대성했다. 그리하여 효명세자는 조선 후기 궁중 연향과 정재 양식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이는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는 대청을 시작한지 3일 만에 자신의 하례식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안동 김문 계열의 전·현직 예조판서들을 감봉 처벌했다. 대리 청정 말기에 이르러서는 안동

김씨 세력을 정치적으로 거의 제거하고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

여러 차례 큰 궁중 연회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총괄하는 진전소의 당상에 김조순에 맞섰던 박종경의 아들을 임명해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했다. 효명세자는 연향에 쓰일 정재들을 창작하면서 이름만 전해오던 춤들을 모두 자신의 신작(新作)으로 되살려 내었음 뿐 아니라 전대로부터 전승돼오던 정재들도 다시금 화려하게 재색하고 무용수들의 수도 늘려 웅장하고 화려한 대규모의 연회를 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래한 당악 정재를 향악화하고 당악 정재(唐樂呈才)와 향악 정재(鄕樂呈才)간에 있었던 형식적, 내용적 차이를 불식시켰다. 이는 단지 중국에서 유래한

당악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춤이 중심이 되는 향악 정재의 예술적인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효명세자는 자신이 대리 청정한 3년여의 짧은 시기를 통해 조선 궁중 정재의 수준을 정점으로 끌어올려 정재를 왕궁 문화의 꽃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조 궁중 정재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그 결과 효명세자는 조선조 말까지 전해지는 53종의 궁중 정재 중 26종의 정재를 직접 예제하고 재창작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궁중 연향과 정재 양식을 새롭게 양식화하고 정비, 확충해 조선 궁중무용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선조 초기의 정재들이 왕권 창립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이던 정치적 색채를 퇴색시키고 효명의 문화작품

세계가 지녔던 자연 대상과 사물들을 본 뒤의 감흥을 춤으로 묘사하거나 자연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춤 그리고 이제까지 궁중 정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독무 형태의 춤도 등장했다. 창사 없이 전문적인 기교를 선보이고 시각적인 흥겨움을 강조하는 스펙터클한 성격의 정재도 늘어나 궁중 무용의 주제와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 방식과 춤 형식 역시 다양해져서 예술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나아가 공연 구성에 있어서도 향악 정재의 비율을 당악 정재에 비해 월등히 높이고 조선적인 주제를 들어오는 등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궁중무용의 진경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는 궁중무용단장이 아니라 예비 국왕이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격이 충분한 무용인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거머쥔 예비 선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절했다. 미인박명(美人薄命)은 남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스물 두 살 청년 효명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연고 없는 노숙자가 죽어도 타살(他殺)인가, 동사(諫死)인가, 아사(餓死)인가를 밝히거늘 영명한 세자가 왜 요절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 결국 독살설에 기대야 하는가. 나라 밖에서는 현란한 신문물이 범람했지만 조선의 19세기는 잠막 처진 고인 운명이었다.



진 얼굴의 문인석(위), 수릉 전경(아래).

### 수릉(綏陵)

순조의 아들이자 현종의 아버지 추존왕 문조와 비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趙氏)의 합장릉이다. 수릉은 몇 차례 능지(陵地)가 옮겨지다가 현 동구릉 경내로 자리 잡았다. 세자 신분으로 죽자 무덤을 20대 경종과 계비 신의왕후를 모신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의릉(懿陵) 옆에 조성했다. 현종 12년(1846) 길지로 옮기자는 논의에 따라 양주군 용마산 기슭으로 천장했다. 그 후 철종 6년(1855) 현 위치인 태조 건원릉 옆으로 천장하면서 동구릉의 마지막 아홉 번째 능이 됐다. 이로 인해 동구릉이라는 명칭이 정착됐다. 문조(文祖)라는 시호로 불리는 것은 대한제국 성립 후 1899년 황제로 추존되면서 문조의황제라 칭한 것에 연유한다.

22세의 나이로 요절한 익종과는 달리 83세의 장수와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신정왕후는 고종 27년에 승하해 수릉에 합장됐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경역) 소재. 사적 제193호.

글=이우상(소설가 asd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설악산 동해사 감로법비 16주년 기념 대법회

동해사에 내리는 감로 법비를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망울!  
밤에도 낮에도 아 성스러운 광명이여!  
아 이 신비스런 법비의 광명이여!  
우리의 소원을 섭수하소서!  
아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나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을 내려주소서.



지난 1992년 법비와 광명이 내린 이래 매년 그달 2시에는 여지없이 40여일 동안 매년 법비광명이 수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동해사 불탑사에서는 매일 기도정진과 초창기도 법회에 1일 수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철야정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도량에 불자님의 동참을 초청하며 사찰단위의 법회도 환영합니다. 이 성스러운 전세계에서 만나기 어려운 법비 광명의 광경을 친견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감로법비 16주년 기념 대법회 [2008년 10월 29일 오후 1시]

- ◇ 1부 : 연예인 초청 경로 대전치
- ◇ 2부 : 각 종단 중정 큰스님 초청 기념 대법회
- ◇ 3부 : 수계산림 대법회
- ※ 식사 및 숙박 무료제공 (예약요함)

## 법비광명 축제 및 기도기간

◇ 매년 10월 29일 - 11월 29일 철야기도